머무르고 싶은 학교, 천안 새샘중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말하다

Introducing the Top-notch Facilities And Beautiful Environment of Saesaem Middle School

이 강 일 / 천안새샘중학교 교사
Lee, Kang-Il / Teacher, Cheonan Saesaem Middle School
sumw0@hanmail.net

1. 들어가며

본교는 2009년 개교한 BTL (교육시설 민자 투자 사업) 학교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29학급, 총 107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신생학교이다. 2011년부터 '교과교실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매력있는 학교 만들기' 라는 주제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공간 배치 변화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의 휴게·편의 공간인 홈베이스를 구축하고, 교과목의 특색에 맞게 교과교실을 구축한 부분이다. 2014년까지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를 확대한다는 정책에 부합되로록 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본교의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특화된 공간, 아쉬운 공간, 그리고 교사가 바라는 이상적인 공간들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표 1. 시설현황

지원시설														
도서관	미디어스페이스	시청각실	체육관	교무센터	교사연구실	홈베이스	동아리방	해금실	방송실	급식실	운동장	야외수업장	야외휴게공간	주차장
1	7	1	1	1	10	12	1	1	1	1	1	1	3	1

2. 특화된 공간

2.1 샘이 깊은 조형물

본교는 초대 미술 교장선생님의 뛰어난 미적감감으로 공간을 파스텔톤으로 페인트칠하여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학교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샘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본교의 교훈인 '샘이 깊은 물'을 담아낸 조형물을 설치하여 끊임없이 샘솟는 지혜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중앙 현관

샘이 깊은 물

2.2 도서관

전면이 유리창으로 넓게 트여 마음이 시원해지는 공간으로 다른 학교의 도서관과는 차별화되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다. 점심시간의 도서관은 바닥에도 빼곡히 앉아서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서관은 복층으로 2층은 열람실, 3층은 서가로 이루어졌다. 복층 구조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 입구의 오른쪽 벽면에는 벽화를 그려놓고 벤치와 가로등, 탁자와 소파, 나무 스툴을 설치하여 북 카페를 만들어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담소와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입구에 잡지대를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잡지와 신문을 전시함으로써 복도를 통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의 왼쪽은 연두색 소파와 조명등을 설치하고 흰색 책꽂이를 설치하

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에는 열람공간과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배치하였고, 창가쪽에는 소파를 비치하여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어과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수업을 위하여 TV 모니터와 이동형 화이트보드를 설치하여 독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목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 외부 북 카페

도서관 입구

도서관 내부

도서관 내부

2.3 학생 휴게·편의 공간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 학생 지원 시설 중 학생들의 생활 거점 공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 홈베이스다. 홈베이스 고유의 기능 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층의 복도 양쪽 끝과 중앙에 학생들의 휴게 공간인 홈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휴식, 담화, 교류를 나누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인 learning counter를 복도의 끝부분에 구축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광장을 모습을 담은 홈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톰킨스퀘어 광장 홈베이스에서는 소규모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벤치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홈베이스 기능 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과학교과교실 옆의 홈베이스에는 천장에 회전 별자리를 설치하여 침대형 스툴에 누워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외에는 파라솔과 탁자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고, 옥상에는 정자를 만들고 화분에 나무를 심어 도심속에 자연을 옮겨 놓은 환경을 만들었다.

표 2. 학생 휴게 · 편의 공간

장 소	용 도	비 고
야외무대	목요음악회	1
야외분수대	휴식	1
소나무오솔길	산책로	1
야외홈베이스	독서 및 담소	2
각 층 홈베이스	휴식 및 문화공간	12
옥상정자	휴식 공간	1
Learning Counter	담소 및 배움터	4
체육수업공간(그늘막)	야외체육수업 공간	1

톰킨스퀘어광장 홈베이스

Learning Counter

천안문광장 홈베이스

야외 홈베이스

2.4 소나무 오솔길과 분수대

점심식사 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할 수 있는 작은 산책로 소나무 오솔길이 또한 우리학교의 자랑이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던 허허벌판의 공간에 소나무 오솔길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분수대를 만들고 주변의 소나무 오솔길에 벤치를 설치하여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야외 분수대

소나무 오솔길

2.5 문화 예술 야외 무대와 샘 갤러리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특화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작은 음악회 공간인 야외 무대를 마련하였다.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시간과 음악시간에 배운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학교 마크와 교훈을 담은 플래카드를 무대 뒤에 설치를 하여 무대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30분씩 작은 음악회를 열어 학생들의 오감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작은 미술관 아름다운 갤러리 '샘 갤러리'를 1층 현관에 구축하였다. 벽면에 작은 전등을 달아 미술관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작품들이 돋보일 수 있는 색깔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미술 작품, 지역인사 초청작품, 학부모 작품등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문화예술 야외무대

샘 갤러리

2.6 야외 그늘막과 조형물 '솟대'

딱딱한 시멘트 스탠드와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운동장에 야외 체육 수업 공간인 야외 그늘막을 설치하여 체육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돔 형식을 탈피하여 사선형태로 그늘막을 만들어 바람이 통하도록 함은 물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딱딱한 느낌의 시멘트 스탠드위에 인조 나무를 덧대어 포근한 느낌이 나는 스탠드를 만들어 신생학교로서 나무 그늘이 없는 것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술 조형물 '솟대'를 야외 그늘막 뒤에 세워 체육 수업을 하면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외체육수업공간(그늘막)

솟대

3. 아쉬운 공간들

3.1 공간의 협소와 통풍의 문제

개교 1차년도에는 7개 학급이 입학하여 3층에 있는 교실을 사용하였다. 햇빛과 통풍을 고려하지 않은 교실의 배치로 인하여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추운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난다. 본교는 교과교실제 시행을 목적으로 증축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도 공간이 좁은 편이다. 29개 학급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복도가 혼잡한 실정이다. 또한 홈베이스 공간에는 사물함을 배치할 수 없어서 복도에 배치를 하여 더욱 더 혼잡하다. 예산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복도 공간이 아주 넓어 복도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2 새샘관 공간의 협소

학교 축제나 영어 팝송대회 등 학교 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새샘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교생 29개 학급을 수용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 2개 학년의 수용만 가능하여 학년을 분리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30개 학급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의 학생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증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3 사물함 배치와 교과교실 이동의 불편함

30학급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로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교과교실 45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 동선을 최소화시켜 시간표를 편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물함에 개인 사물을 모두 두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대형 사물함을 제작하여 배분하였으나, 교과교실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오전 수업시간의 책을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다. 1차년도 연구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 교과교실 이동에 관한 문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해결 방안으로 교과교실이 특화되어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받기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오히려 생활의 활력과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존 사물함

신형 대형 사물함

3.4 교과별 미디어 스페이스

각 층의 홈베이스 안에 교과별 미디어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홈베이스로서의 기능은 충족되고 있으나, 교과별 특색을 반영한 미디어 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은 다소 떨어진다. 그 중 과학과 미디어 스페이스 '별을 헤는 청마루'에는 과학 코너를 마련하여 쉬는 시간에도 현미경등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과학 관련 도서와 잡지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과 미디어 스페이스 '생각누리'에는 학생들에게 이달의 추천도서와 시를 게시하고 있다. 본교는 ㄷ자형으로 증축된 학교로 교과교실이 일(一)자형으로 배치되었고, 교사연구실이 각 층 복도의 끝에 위치하여 미디어 스페이스와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별 미디어 스페이스를 교과의 미디어 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배치했어야 한다. 교과별 미디어 스페이스는 교과마다의 교재, 비품등을 준비하고 이동하여 온 학생이 교과의 분위기를 느끼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과의 오픈 스페이스는 각 교과의 목표에 부합되는 미디어와 교구를 배치하여 교과별로 고유한 공간으로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 학생들의 인식 변화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별을 헤는 청마루

생각누리

4. 제언

교과교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동과 공간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기 목적을 위해 여러 공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과 홈베이스에 따른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실 이동을 할 때도 홈베이스의 위치와 교실의 거리에 따라 이용하는 횟수가 달랐으며, 쉬는 시간에 이용하는 공간 또한 교실과 홈베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짧게 교과교실을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교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 공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제언을 해본다.

1층 현관으로 들어서면 넓은 원형의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고, 방사형으로 넓게 퍼져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면 교과교실이 나오면서 교과교실의 특색을 담은 미디어 센터와 홈베이스를 배치하여 이동 동선의 길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본다.

교과관련 도서와 학습 준비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교과교실에 설치되면 교과교실을 좀 더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복도와 홈베이스가 아주 넓고 대형 개인 사물함이 복도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교육 공간이 절실히 필요해 졌다. 개개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건축가에 의해 창조된 교육 공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우선 학생들의 기본 생활태도와 자주적인 학습 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